

金지사, 국정과제 채택·국비 확보 ‘광폭행보’

대통령실 이상호·하정우 수석 면담
에너지혁신성장벨트·COP33 등 건의
기재부 2차관엔 SOC 전폭지원 요청

김영록 전남지사가 핵심 현안의 새 정부 국정과제 채택과 내년도 국비 확보를 위해 광폭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김영록 지사는 16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을 찾아 이상호 정무수석, 하정우 AI미래기획수석과 잇따라 심층면담을 갖고 ‘전남 서남권 에너지 혁신성장벨트’, ‘남해안권 발전 특별법 제정’, ‘2028년 유엔기후변화협약당사국총회(COP33) 여수(남해안·남중권) 유치’ 등 전남 미래발전과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핵심 현안을 집중 건의했다.

김 지사는 이날 대통령실의 ‘RE100 산업단지 정책’ 발표에서 언급된 ‘RE100 산업단지 및 에너지 신도시 조성’과 지원에 관한 특별법’의 조속한 제정과 전남 서남권을 RE100 특화산업단으로 지정해 줄 것을 요청했다. 특히 에너지 혁신성장벨



김영록 전남지사가 16일 서울지방조달청에서 임기근 기획재정부 2차관과 면담을 갖고 전남도 핵심 사업 해결을 위한 건의 및 협조를 요청했다. <전남도 제공>

트의 필수 인프라인 전력계통망 조기 구축에 대해서도 집중 논의했다.

이와 함께 남해안권을 새로운 국가 성장축으로 육성하기 위한 ‘남해안권 발전 특별법’ 제정,

전남에 ‘남해안 종합개발청’ 설립 등을 건의했다.

또 198개국이 참여하는 ‘2028년 유엔기후변화협약당사국총회 여수 유치’와 관련, 새 정부 국정과제 반영과 여수 중심 남해안 남중권을 개최

도시로 먼저 지정해줄 것을 강조했다.

이와 함께 전남 동부권 산업 재편을 위해 광안·순천 일원에 120만평 규모의 ‘미래첨단소재 국가산업단’, ‘이차전지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지정’, ‘석유화학·철강산업 대전환 메가프로젝트 추진’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이어 김 지사는 이날 오후엔 서울지방조달청사에서 임기근 기재부 2차관과 면담을 갖고 지역 현안 사업에 대한 내년도 국비 지원을 강력히 요청했다.

김 지사는 “새 정부의 민생 안정과 경기회복 정책에 적극 공감하고 도 자체 대책도 추진하고 있지만 지역 형편은 좀처럼 나아지지 않고 있다”며 “SOC 확충 등 근본적인 현안 해결을 통해 지역 여건이 개선되도록 내년도 국고 예산의 적극적 지원을 바란다”고 밝혔다.

특히 지역 경제 발전과 관광 활성화의 마중물이 될 호남권 미래 SOC 확충과 관련, 김 지사는 “전남의 도로·철도 환경은 전국 어느 지역보다 열악하다”며 “차질 없는 SOC 사업이 추진돼 지역 균형발전의 큰 역할을 하도록 충분한 예산 반영을 부탁드립니다”고 당부했다.

이와 함께 국립 김산업 진흥원, AI 첨단 축산업 융복합 밸리 조성, 여수 석유화학 산업단지 디지털 기반 자원순환 시범산업단 구축, 스케일업 실증센터 구축, K-디즈니 애니·웹툰 인재양성 거점기관 조성 등 핵심 현안 사업을 건의했다.

예비타당성조사 중인 사업의 경우 전라선 고속화철도 건설(총 1조9천386억원·2026년 10억원), 고흥·봉래 국도 15호선 4차로 확장(총 5천142억원·2026년 50억원), 국립해양수산물관 건립(총 1천441억원·2026년 54억원), 화순군 폐광 지역 경제진흥 개발(총 5천945억원·2026년 102억원) 등의 조기 통과와 내년 국비 반영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에 대해 임기근 2차관은 “전남 현안 사업의 필요성에 대해 충분히 공감했으며 건의사업이 최대한 반영되도록 예산 심의 과정에서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전남도는 정부 예산안 심사가 본격적으로 이뤄지는 중요한 시기인 만큼 김 지사를 비롯한 실·국장들이 중앙부처와 기재부, 국회를 집중 방문해 국비 확보에 전방위 대응할 방침이다.

/김재정 기자

어등산관광단지 개발사업 내년 착공 ‘순항’

신세계프라퍼티, 3차 중도금 77억 납부

‘그랜드 스타필드 광주’ 등이 들어설 ‘어등산관광단지 개발사업’이 현지법인 설립, 토지비 중도금 납부, 조성계획 변경 및 실시계획 추진 등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

광주시는 16일 “어등산관광단지 유원지부지 개발사업”의 민간 개발자인 ㈜신세계프라퍼티가 협약에서 정한 토지비 3차 중도금 77억4천만 원을 광주도시공사에 납부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1월 신세계프라퍼티는 협약이행보증

금(116억원)과 토지계약금(88억원)을 납부했다. 이어 같은 해 3월 현지법인 ㈜스타필드광주 설립과 기본계획(MP) 용역 계약체결, 올해 1월 토지비 2차 중도금 납부(77억4천만원)까지 조치했다.

앞서 광주도시공사와 신세계프라퍼티는 2023년 12월22일 어등산관광단지 유원지 부지 개발사업에 대한 세부 사항을 담은 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에 따라 신세계프라퍼티는 2025년 상반기부터 유원지 부지에 대한 세부 설계를 추진

중이며 하반기에는 조성계획 변경 절차에 착수할 계획이다.

특히 2028년 착공해 ‘그랜드 스타필드 광주’, ‘콘도’, ‘부대시설’의 경우 2030년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레지던스’는 2033년 준공 계획이다.

강기정 시장은 “관광·휴양·문화·레저와 소평을 아우르는 체류형 명품 복합관광단지로 조성될 수 있도록 행정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향후 세부 계획이 마련되면 지역 소상공인과 의상생 협의도 함께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변은진 기자

전남도, 농업재해 전략작물 직불금 기준 완화

미재배 시에도 시·군 판단 지급 가능

전남도는 16일 “여름철 농업 재해로 인한 전략작물 재배 농가의 어려움을 최소화하기 위해 전략작물 직불금 지급 조건을 완화한다”고 밝혔다.

전략작물 직불금은 파종부터 재배, 수확까지 이행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지급되지만 이번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논농, 옥수수 등 하계 전

략작물 재배 농가에 한해 이행조건을 완화, 직불금 지급이 가능하도록 했다.

재파종, 보식 등을 통해 작물 재배를 지속하는 경우 정상 재배 상태가 아니어도 직불금을 지급하고, 파종 불가, 작목 전환 또는 농지 유실 등으로 작물을 재배하지 못하면 시·군 판단에 따라 직불금을 지급하도록 했다.

농업 재해를 입은 전략작물 직불금 신청 농가는 8월31일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전략작물

피해 신고서’를 제출하면 된다. 현장 확인 후 12월까지 ha당 100~500만원의 직불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논농 피해 농가가 곡을 재파종할 경우 농작물 재해보험과 농업수입안정보험도 가입할 수 있도록 가입 기간도 당초 18일에서 25일까지 연장했다.

유덕규 식량원예과장은 “올해 논농 등 전략작물 직불금을 신청한 농가의 자연재해로부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이행 조건을 대폭 완화했다”며 “피해 농가는 8월31일까지 피해 신고서를 꼭 제출하고 농작물 재해보험도 반드시 가입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양시원 기자



전국농민회총연맹 광주·전남연맹은 16일 전남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미국산 농산물 수입 확대 중단을 촉구했다.

“미국산 농산물 수입 확대 중단하라”

전농 광주·전남연맹 촉구

전국농민회총연맹 광주·전남연맹은 16일 “미국산 농산물 수입 확대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사진>

전농 광주·전남연맹은 이날 전남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미국과 관세 협상을 앞두고 타 산업을 보호한다는 명분 아래 농산물 시장 개방을 지렛대로 활용할 것으로 보인다”며 이 같이 주장했다.

미국산 농산물 수입 확대와 관련, 전농 광주·전남연맹은 “현실화한다면 이미 개방된 미국산

밥쌀용 쌀 4천t의 배 이상 수입이 확대되고 미국산 쇠고기도 30개월령 기준에서 그 이상으로 확대될 것이 자명하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전농 광주·전남연맹은 “이재명 정부는 송미령 장관을 임명함으로써 스스로 반 농업 농민 정부임을 자명했다”며 “미국산 농산물 수입 확대로 국민 건강과 기후 위기 대응, 식량주권을 포기한 정권으로 낙인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전농 광주·전남연맹은 오는 18일 광주 5·18민주광장에서 미국산 농산물 수입 계획 중단을 요구하는 집회를 열 계획이다.

/김재정 기자

꼭 기억해야 할 자전거 안전 수칙



우리의 건강한 일상을 지키는 자전거 타기!
기본 수칙만 알아도, 교통사고 예방은 물론! 안전한 도로 환경을 만들 수 있습니다.
두 바퀴로 힘차게 달리는 안전한 생활, 우리 함께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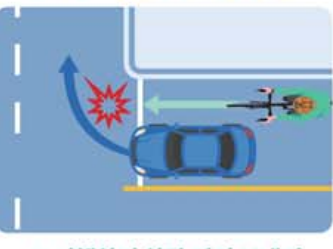
1 안전한 자전거 주행 기본 수칙

1 자전거는 한 줄로!



2대 이상 나란히 통행 불가
안전표지로 통행이 허용된 경우는 가능

2 우회전 차량에 주의!



서행하며 차량 먼저 보내기
차량 운전자의 시야 벗어난 사각지대 주의 필요

3 횡단보도는 두 발로!



내려서 자전거를 끌고 건너기
자전거 횡단도가 있는 경우, 횡단도를 이용하여 건너기

2 교차로 좌회전 주행 방법

차량 신호로 좌회전 불가



자전거는 좌회전 신호가 아닌 전방의 직진신호에 따라 이동

꼭 기억하세요! 2번의 직진을 통한 좌회전 방법



1 직진 후 모서리에서 기다리다가 다시 2 직진
*내려서 횡단보도로 끌고 건너면 더 안전해요!

CMYK